

광양 '방과후 우수반' 논란

시의회 승인... 학부모·시민단체 "공교육 무너뜨린다" 반발

광양시가 추진한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계획안이 시의회 승인을 받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전교조 전남지부 광양 중등지회 등 광양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고교 3학년 우수학습반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 1·2학년으로 대상을 바꿔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수만을 위한 교육정책은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특히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항의 집회와 피켓시위를 벌여왔으나, 지난 달 21일 광양시의회가 이를 무시한 채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같은 달 28일 규탄성명을 내고 광양시와 시의회를 짜잡아 비난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3월 30만명 자족 도시 조기 실현의 결집돌 국복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습반을 시범운영했다가 대학입시 준비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는 고교 1·2학년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민의 43%가 교육문제 때문에 대도시나 인근 자치 단체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다, 현 교육체계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불법으로 배제하는 분석에 따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운영계획을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광양지회 관계자는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상위 10%를 위한 교육정책은 대다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안겨줄 향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광양시와 시의회는 위험한 발상을 행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광양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고려해 모두가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됐어야 옳았다"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운영계획을 승인해야 되는데 덩달아 동의해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면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시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 회의를 3회에 걸쳐 가졌고 타 자자체의 제도를 벤치마킹 한 뒤 올해 운영방안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한편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사업은 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공모와 선발시험을 거쳐 120여명을 선발한 뒤 10개 월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특정 공간에서 매주 토·일요일 국내 유명강사들로부터 과목별 학습을 받게 된다.

/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제철 - 광양중마시장 자매결연

광양제철소(소장 조희하)는 광양시 중마동 중마 상설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광양시 중마동 중마 상설시장에서 열린 결연식에는 공윤찬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등 직원 37명을 비롯해 광양시 정현복 부시장, 중마상인회(회장 이해한) 30명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양쪽은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광양제철소는 중마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시장 이용률을 적극 독려하고, 시장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마상설시장은 지난 2005년 5월 준공돼 현재 12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선상투어로 여수의 밤 느끼세요"

2일부터 거북선 모형 야간 유람선 운행

'선상 아경투어로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맘껏 느끼세요'

여수시는 2일부터 오는 10월말 까지 거북선 모형의 조명시설을 설치한 야간 유람선을 운행한다.

여수시는 지난 2월 관내 유람선을 대상으로 '야경 유람선 투어상품 운영사업'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 운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야간 유람선은 156t 규모의 '한마음호'(정원

300명)로 관광객 편의시설과 공연장을 비롯해 LED 조명과 레이저를 활용한 특색있는 거북선 형태의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야간 유람선은 매주 토요일 오후도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발해 자산공원~해양공원~진남관~돌산대교~국동 어항단지를 운항하며 1시간가량 소요된다.

승선요금은 성인 1만원, 어린이 5천원이며, 여수관광 할인쿠폰을 가져오는 외지 관광객에게는 1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문의(061-663-4424)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공직자들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장성 북하면 멘토제 운영 월 2회 방문 한글 등지도

장성군 북하면 공직자들이 결혼 이민자 주부 14명과 1:1로 멘토 관계를 맺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하면 공직자들은 매월 2회 지정 멘토 대상 가정을 방문해 한글과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는 등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이민자 주부의 생일날에는 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일 케이크도 전달하며 다문화가정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공직자 지정 멘토제'를 전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도우미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열어 한국어와 문화교育 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87명 3천여만원 전달



제 3회 학봉 장학금 전달식이 이연현 재단 이사장, 성길모 화순교육장을 비롯한 화순군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9일 화순군 능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이경무(전남대 의대)군 등 대학생 5명에 600만원을 비롯해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8명 등 모두 87명에게 2천975만원이 주어졌다.

학봉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화순 청풍 출신의 재일교포 이기학(79)씨가 사재 7억5천만원을 출연해 만든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학봉 장학재단은 자본금을 내년까지 1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순=조성수기자 css@



목요일에 직거래 장터 오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청(청장 황일봉) 주차장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목요장터'를 열었다.

장터에는 광주 14개 지역농협과 축산농협이 우수농산물과 축산물 등 50여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금오도·거문도 국립공원 해제 건의

여수시 "환경보전 이유로 개발 막혀"

여수시는 금오도와 거문도 등 일부 섬지역을 다도해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주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남면 금오도와 삼산면 거문도, 돌산읍 일포마을 등 일부 섬을 다도해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며 "환경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들 섬지역 주민들은 건물 증·개축과 매매 및 토지이용 등과 관련해 엄격한 제약이 뒤따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금오도와 거문도,

향일암 인근 마을인 임포마을은 관광 개발 여건이 충분한데도 국립공원이라는 '환경보전'의 틀에 얹혀 개발이 더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인재산권 행사와 관광개발을 위해 이들 섬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야 하며, 최소한 재산권 행사가 쉽도록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제한조치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만정원 박람회 추진단 발족

순천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을 발족한다.

지난달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양동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과장 팀장 3명, 6급 11명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을 1일 발족한다. 추진

단은 오는 9월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협회(AIPH) 총회를 앞두고 유치준비를 총괄한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박람회 실무를 맡아왔던 이승진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이 국장이 오는 6월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라양 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다음 인사 때 기획재정국장을으로 전보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2013년 5월부터 152만7천㎡ 부지에 국내외 정원 30곳과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유치에 성공하면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면에서 각각 1조3천323억원과 6천790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